

‘국민연금 재정난·사적연금 걸음마’ 독립적기구 설치, 연금개혁 나서야

보험연구원, OECD 연금정책·시사점
한국 국민연금, 구조적 수지불균형
기금 소진시점 이르면 2057년
“상생 공사연금 개혁에 주목을”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혁은 고령화 문제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연금제도 개선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2일 발간한 ‘OECD 국가의 연금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공적연금의 구조적 문제로 공적연금의 재정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공적연금 개혁안과 더불어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개선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 9%, 급여수준 40%(소득대체율)로 설계돼 구조적으로 수지불균형 상태다. 이로 인해 기금소진 시점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빨라져 보험료 상향 등 재정문제 해소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등 퇴직급여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2014년부터 제안돼 왔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국가의 연금체계 분류)

구분	공적연금 보완형 (비스마르크형)	공적연금 대체형 (베버리지형)
목적	·은퇴이전의 생활수준 유지 (상대적 생활수준)	·빈곤완화 및 최저소득보장 (절대적 생활수준)
운영형태	사회보험기반의 소득비례연금	정액급여의 기초연금
재원조달	사회보험료	조세
공적연금역할	높음	낮음
사적연금역할	제한적(공적연금 보완)	확대(공적연금 대체)
국가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미국, 한국 등	영국, 호주, 아일랜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자료=이용하·정해석(2008),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국민연금연구원; OECD(2019), Pension at a Glance 등을 참조하여 작성.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적연금 제도적 특성을 갖는 OECD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국가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되 사적연금의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령화 연금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국가의 연금체계는 공적연금에 대한 사적연금 역할에 따라 공적연금 보완형과 공적연금 대체형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보완형 체계에 가깝다. 보완형 국가의 연금개혁 방향은 공적연금의 경우 부분적, 혹은 근본적 개혁으로 진행됐고 사적연금의 경우 공적연금을 보완하되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개혁은 부분적 개혁으로 보험료 인상,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

등 재정안정화 조치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소득보장 강화 정책을 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본적 개혁으로는 연금제도의 기본 틀 자체를 변경하는 전면적 개혁과 부분민영화, 최저보증연금 도입이 추진됐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적 격 개인연금(미스터연금), 가입범위 확대(전업주부 가입), 준강제화(자동가입제도), 세제혜택 강화(배이비부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등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이 실시됐다.

보고서는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연금개혁을 보면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은 취약계층 지원확대 등 공적연금 내실화와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상생의 공사연금 개혁 방향으로 추진해 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설 앞두고 붐비는 전통시장

12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제수용품 구입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브렉시트, 美·中 무역분쟁 등 내년, 세계경제 위협요소 잠재

한은 ‘2020 이후 경제 주요이슈 2’
올해, 국가별 선거 등 정치적 이슈
경제정책 불확실성 고조될 전망

2020년 이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홍콩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시화되고 미·중 및 미·EU(유럽연합) 무역분쟁과 같은 무역갈등이 이어지는 등 세계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위협요소가 잠재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2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2’ 보고서에서 세계경제의 주요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 ▲미·중, 미·EU 간 무역갈등 재부각 가능성 ▲주요국의 정치적 이슈와 불확실성확대 가능성 ▲글로벌 매크로 레버리지 확대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경우 노딜(nondeal) 가능성은 줄었으나 향후 EU와 영국 간 통상관계 협상 등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홍콩사태는 올해 9월 입법회 의원 선거 전후로 시위양상이 재차 과격해질 여지가 있다.

최근 불거진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의 경우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단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역갈등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분쟁의 경우 1단계 합의에 도달하면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향후 협상 의제가 중국의 제도 및 경제구조와 연관되어 있어 양측이 추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김희주 기자

데이터 3법 통과... 핀테크 혁신 빨라진다

금융위원회, 오는 7월부터 시행
기업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박차”
시민단체 “소비자 권리침해 등 우려”

1년 넘게 표류했던 신용정보법이 우려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금융권을 비롯한 IT(정보기술), 핀테크 기업 등은 일제히 환영하는 모양새다. 다만 시민단체는 개인정보가 기업의 이윤추구에 활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기업과 시민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담은 ‘데이터 3법’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데이터 3법중 신용정보법은 금융권 전반의 데이터 활용체계를 바꿀 수 있어 금융업계의 기대를 모아왔다. 신용정보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업 “금융서비스 출시 빨라질 수 있어”
 신용정보법이 통과하자 금융권을 비롯한 IT, 핀테크기업은 일제히 환영했다. 빅데이터 활용이 한층 자유로워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면서 이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출시가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대운 핀테크산업협회장은 “지금과 같이 핀테크의 법제도적 근간이 확립되고 혁신과 성장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핀테크 기술 역량과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이 결국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통과에 맞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과 개인신용평가업(CB)을 도입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카드, 보험사 등에 분산돼 있는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해 알기 쉽게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은 고객의 카드거래내역과 보험정보, 투자정보를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와 자산, 대출 등을 본인과 유사한 소비자들과 조건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개인정보 악용될 수 있어”...우려 목소리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가 기업의 이윤추구에 활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안장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인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 당할 수 있고, 데이터와 관련한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민단체는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 없이 이용, 판매하는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무시됐다”며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기업이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현대건설, 옥수동 재건축에 ‘디에이치’ 제시

시공 선정엔 ‘한남 디에이치 그라비체’

현대건설은 서울 옥수동 한남하이츠 재건축단지에 ‘한남 디에이치 그라비체’를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다면 강북권에서 최초로 ‘디에이치(THE H)’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

‘그라비체’는 축복의 땅을 의미하는 ‘그레이스(Grace)’와 건강한 삶을 의미하는 ‘비바체(Vivace)’의 합성어로 축복과 건강을 지켜주는 명품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지난 1982년 준공된 한남하이츠는 강북권 최고의 한강 조망으로 강변북로와 3호선 등을 끼고 있는 입지다. 게다가 국회의원, 기업인, 연예인 등 정·

계 유명인들이 거주하는 ‘부촌’으로 명성을 이어온 곳이다.

현대건설은 최고의 입지조건, 최상의 조망권, 원조 부촌의 명성을 이은 한남하이츠에 건설명가로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강북권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특별한 전략을 공개했다. ‘한남 디에이치 그라비체’는 지하6층, 지상9층~20층 규모로 총 10개동 790가구, 근린생활시설 1개동으로 지어질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최고급 명품 아파트 설계를 위해 세계적인 건축설계그룹사인 에스엠디피(SMDP)와 손을 잡았다. 에스엠디피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등 프리미엄 아파트 설계에 탁월한 실적을 갖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